



전북체육회 전북·전남·광주 실업팀 지도자 인권교육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6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전북과 광주, 전남 실업팀 지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 교육은 고(故) 최수현 선수를 추모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대한체육회 최종덕 국민감사단장은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 심각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고, 정성숙 국가대표선수촌 부촌장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신치용 선수촌장은 '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장은성 기자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선품기 지원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원선)와 호성동주민센터(동장 허광희)는 6일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폭염과 열대야 극복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정에 선품기를 전달했다.

이날 지원한 선품기는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CMS후원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구입 지원했으며 주민이 주민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정원선 위원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게 선품기를 지원하게 돼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생활고와 무더위라는 이중고를 겪는 이웃들에게 선품기가 내뿜는 시원한 바람 한줄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영양 가득한 낙지로 몸보신하세요'

김명자 낙지마당 익산직영점, 깨끗하고 건강한 해산물로 적극 홍보 나서

김명자 낙지마당 익산직영점(대표 김선옥)은 익산시 무왕로 1267(부송동)에 소재한 100여명이 식사가능한 식당으로 지난 5월 14일 개업한 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꾸준한 고객증가와 매출증가를 하고 있다.

낙지마당 익산직영점은 8월부터 낙지요리의 왕새우 소금구이 요리도 취급하고 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낙지볶음, 산낙지볶음, 낙지전골, 산낙지전골, 산낙지회, 왕갈비탕, 낙지군만두, 왕새우소금구이 및 기타 식사류 등 레시피를 선보이면서 건강한 레시피를 제공한다. 낙지의 효능은 '원기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낙지에는 타우린이 34%나 들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철이 지은 자산어보에도 영양부족으로 일어나지 못한 소에게 낙지 서너마리만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한편, 김선옥 익산직영점 대표는 김제 출신으로 같은 건물 내에서 소라삼육회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회원, 익산경찰서 기동대 어머니회 회원 및 익산여성기업인 임업 등의 봉사를 열심히 할 정도로 지역사회 봉사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직영점은 항상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김명자 낙지마당에서 전수 교육받은 대로 '레시피와 요리방법' 등을 따르며 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대비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식당이다. 단체, 가족 및 지인 등이 낙지요리, 왕갈비탕, 왕새우 소금구이 및 기타 식사류 등을 드시고자 할 때는 전화(063-836-2596)로 문의해서 사전예약을 하면 특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오에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선정

신풍동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착한가게 선정되며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군산시 신풍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선봉)가 최근 신풍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착한가게 7호점으로 '군산오에이' 선정하고 현판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3만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지역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군산오에이에서는 그동안 신풍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해왔다. 대표 박정화는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라도 어려운 동네 주민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금지면사회보장협의체, 불우이웃에 밀반찬 나눔

남원시 금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종석, 민간위원장 김중훈)는 6일 식사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15세대에 밀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 봉사는 2018년 3월부터 금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지역민들의 후원금(420만원)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개관한 금지면누리센터에서 매월 2회 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들이 금지면어울림봉사단을 구성해 참 봉사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리산천년주거(대표 김영광)에서 식혜 100병, 해표식품영농조합(대표 강성균)에서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후원해주는 등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가정에 큰 힘을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효성 전주공장 방문

NH농협은행 장기요 전북본부장은 6일 (주)효성첨단소재 전주 공장을 방문하며 도내 기업 현장방문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장기요 본부장은 탄소섬유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보며 공장 소개와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더 강해 철을 대체할 미래 산업의 '쌀'로 주목되고 있으며 수소 경제 전환의 핵심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

효성은 국내 탄소섬유업계 선도기업으로 2011년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자체개발에 성공했으며, 2013년부터 전주 친환경합산산업단지내에 탄소섬유공장을 설립·운영해 왔다. 또한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단일 탄소섬유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 24,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효성 전주공장 공장장 박진진 상무는 "탄소섬유를 비롯해 핵심소재 국산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가 소재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앞장



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도내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탄소섬유를 비롯한 도내 소재·부품·장비업체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호지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간협, 기생충박물관 초등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간협) 기생충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슬기로운 기생생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총 2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http://parasite.or.kr)를 통해 8월 5일부터 할 수 있고, 매회 1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이다.

한편 기생충박물관은 오는 10일 재개관한다. 문의는 기생충박물관 공식 홈페이지(http://parasite.or.kr), 전화 (02)2601-3284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무주군,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가족교육

사회복지법인 삼통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무주군 각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실시한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가족교육은 경제활동 등을 위한 직업적 특성이나 육아로 인해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각 읍·면별 거점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아크릴 페인트를 이용하여 원목 수건장을 꾸미는 공예체험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 강유민 강사(아트컴퍼니 대표)가 프로그램 강사로 활약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